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0. 22.(목)

재외동포청 · 인천시, ‘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’ 조성 업무협약 체결

- 인천도시역사관 활용해 2027년 리모델링 착수‥ 교육·문화·교류 복합 거점 구축 -

- 역사유물 전시·디지털 아카이브 구축‥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관련 사무국 설치 지원 -

□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선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과 인천광역시(시장 박찬대)는 10월 22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‘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(MOU)’를 체결하고,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활성화 및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 이번 협약은 인천도시역사관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로 조성해 재외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,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, 재외동포와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교육·문화·교류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.

□ 센터는 재외동포의 역사·문화를 보존·전시하고 차세대 정체성 교육, 모국 연수, 국내 구성원 간 교류를 지원하는 복합 시설로 조성된다. 내부에는 해외이주 역사유물 전시공간과 자료실이 마련되며, 역사 자료 수집·전시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함께 추진된다. 또한 차세대 동포 대상 한국어 및 역사·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세미나·워크숍·문화교류 행사도 발굴 운영된다.

□ 양 기관은 센터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,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간 구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.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 사무국, 세계한상대회 사무국, 글로벌한인드림재단 사무국 등 관련 기관의 설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연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.

□ 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은 2027년부터 착수한다. 인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와 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, 재외동포청은 국비 확보와 공사를 주관하고 완공 후 센터 운영·관리를 맡는다. 구체적인 시설 사용 조건과 관리 책임 등은 향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"교육문화센터 건립은 700만 재외동포의 오랜 바람이었다”며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이 공간이 차세대 동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요람이 되고,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한데 모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□ 박찬대 시장은 “인천은 120년 넘게 재외동포와 바다처럼 깊은 인연을 맺어 온 도시”라며, “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고국에 오면 식구로 돌아오는 집이자, 차세대 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이어 “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, ‘재외동포의 인천시대’를 열어 인천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재외동포청과 인천시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리모델링 착수와 시설 인계·인수, 개관 일정 등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인천광역시 재외동포협력과	책임자	과 장 한교동 (032-440-5673)
		담당자	팀 장 문현자 (032-440-1521)
			주무관 이정만 (032-440-1522)
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 황인성 (032-585-3195)
		담당자	서기관 홍민의 (032-585-320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